

목어

제주도 물과 하와이 물

얼마 전 텔레비전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다. 제주도의 지하수에 바닷물이 역류하여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할 수 없다는 보도였다. 물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겠지만 충격적이다. 수년 전에 지하수를 전공하는 한 학자로부터 제주도의 물은 지금과 같은 개발 논리로 간다면 언젠가는 식수 자체를 수입해야 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제주도와 하와이의 지하수가 비교된다. 섬의 크기는 다르지만 두 섬 모두 식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지금 제주도는 지하수를 퍼올리는 시추공이 6000여 개나 되는 반면 하와이는 150여개에 불과하다. 주민과 관광객의 인구를 비교하면 하와이가 제주도의 10배 가까이 많은데, 시추공은 오히려 제주도가 하와이의 40배나 된다.

시추공의 수도 문제이지만 수질도 문제다. 하와이의 개발 역사는 70년이 넘지만 생수 그대로를 무소독 무처리 상태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제주도의 물은 개발 30년도 채 안되어 소독과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두 섬 모두 같은 조건의 천연자원을 가지고 왜 한쪽은 무소독 무처리 수돗물을 만드는가 하면 제주도는 아직도 소독과 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수돗물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었는가를 심각히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개발정책과 수질 보존에 대한 확신과 노력의 차이다. 개발이란 이름으로 파헤쳐지는 시추공이 제주도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반면 하와이에서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관리가 소홀해 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시추공은 학자의 말을 빌리면 300만개에 이르러나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수질에 대한 관심을 갖자. 물은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수(公水) 개념을 철저히 가지고 모두가 주인이 되어 관리해야 한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천연상태에서도 수돗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지하수가 만들어지기까지 제주도는 2~10년, 내륙지방은 20~100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학자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관리 부재의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 물이 오염되면 국민 전체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근후(이화대 교수·본지 논설위원)

법 지키자니 화장실도 못 짓는다

국토이용관리법 왜 문제인가

전통사찰 경내지 대부분 '임야' 건축행위 종교용지에만 허용

국토이용관리법 15조와 이 법 시행령 17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건축행위는 지적법의 지목상 종교용지로 한정하고 있다. 종교용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850여개에 이르는 전통사찰은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해 있으며, 전통사찰 경내지의 대부분은 종교용지가 아닌 임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지키면 경내지에 화장실 하나 지을 수 없다. 특히 사찰이 신도의 교육이나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어 불교활동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면서 농어가 주택이나 편의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어촌의 주택과 편의시설은 자택에 관계없이 신속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전통사찰의

건축행위만은 종교용지로 제한하는 것이 조계종의 불만이다.

전통사찰보존법과 국토이용관리법과의 상호 모순도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 전사법이 특별법이기에 두 법의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허가관청이 같은 사안에 대해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음으로 부조리의 소리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조계종은 국토이용관리법 15조에 전사법을 연계법령으로 삽입해야 하며, 이 법 시행령 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도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건교부에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사찰 내에 포교와 신도교육을 위한 시설의 설치까지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불교 고유의 활동이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사진은 탐방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사찰 내의 전통다원.

전통사찰보존법-국토이용관리법 상충 부분

전통사찰보존법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허가사항) ①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폐기	제1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가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제9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보호)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업행위는 다음 각호의 같다. 1 불교사적, 불교사화 및 사적, 사찰에 관한 관내내도, 불교를 상징하는 목각품·석조품등의 판매 2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묵탁·염주·축대 및 초와 이에 준하는 물건의 판매 3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4 주지가 신도의 교화·수련·교육 및 복지를 위하여 행하는 편의시설의 운영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항 2의 2 지적법의 지목상 종교용지인 토지에서의 종교시설의 설치와 폐교된 학교부지의 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청소년수련시설·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설치

영축총림 재지정 의미

"종단화합 물꼬 텃다"

4월 임시총회 소집이 분기점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총무원장 정대섭의 통도사 영축총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98년 종단 사태로 야기된 조계종의 불화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면 실시를 위해 제출한 종헌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여 해주는 시급성의 성격이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화합을 위한 물꼬를 텃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윌하스님은 "(통도사 영축총림 재지정) 소문으로만 들었다.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편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화합을 위한 물꼬가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시각이 대세적이다.

종헌 개정안이 이번 총회에 인건으로 상정됐고, 종헌·종법개정특위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종헌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집행부에서도 윌하스님이나 정화개혁회의, 사면대상자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종헌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님은 16일 사면과 관련, "집행부로서 종단화합을 위한 일을 진행할 것"이라며 "결과를 염두에 두고 호흡을 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섭이 지난 9일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총회에서 종헌이 개정되지 않으면, 종헌 개정을 위한 총회 소집을 의정장에 요구하겠다"며, 부처님오신날 이전 사면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중앙총회에서도 종헌개정안을 종헌·종법개정특위에서 심의토록 할 것으로 보여 4월중 임시총회 소집 여부가 종단화합을 위한 사면 실시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운 기자

화두, 말보다 마음으로 계합해야

⑨ 최근의 선 논의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최근 선 논의와 관련, 불교와 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단 김용옥 선생의 잘못만이 아니고 널리 일반화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폐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것인지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근본적인 문제는 선(禪)이나 도(道)에 대한 접근 방법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은 실참수행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자들은 선이나 도를 수행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결과 그들은 선이나 도가 추구하고 있는 정신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즉 선을 닦는 목적이나 방법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다는 점이다.

선을 수행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는 마음속에서 언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사랑과 분별을 끊어버리는 것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선종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이 심행처멸(心行處滅),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아닌 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를 통해 헤아리고 생각하는 사랑과 분별이 있다. 이러한 사랑과 분별로 인하여 온갖 번뇌와 망상을 일으켜 고통을 받으며, 바른 지혜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부처님께서 이러한 번뇌와 망상을 끊어버리시면 곧 열반을 증득한다고 설하여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언어와 문자가 끊어져 버린 경계를 언어와 문자에만 의지하여 풀어나려고 한다. 이것을 철학적 관점에서 다시 비판해 본다면, 동양의 직관적 사유의 세계 즉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합일하는 정신세계를 서양의 사변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시각 즉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분리되어진 사유의 방식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서양철학에서도 종래의 주객분리의 사유를 부정하고, 주객합일의 직관적 사유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드문트 훗살이나 마르틴 하이데거가

주장하고 있는 '순수직관'과 '존재현전'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철학의 주제와 사조의 변천도 모르면서 철학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 학자로서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학문이란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이 분명하여야 한다. 그렇게도 사변적 사유를 끊지 못하고 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교학을 전공하면 될 것이다. 교학에서는 언어와 문자를 통해 정신세계에 대한 완벽한 인식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기설은 중생의 언어와 문자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사유하여 인식하는 그 경계가 의식속에 행은(行蘊)의 작용에 의해 회론(戲論)되어 일어나는 허망한 것이라

고 설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곧 선정을 수행하여 그러한 허망한 분별과 망상을 끊어야 한다는 당위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성기설은 모든 분별과 사랑(愛)이 끊어진 뒤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참담고 청정한 인식의 세계 즉 주관과 대상이 합일하는 인식의 세계를 설명해 주고



변상섭

동국대학교 영역위원

있다. 그렇게도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여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으면 교학에 대해 연구하면 될 것인데, 실천적 수행을 하는 선에 대해서 언어와 문자에 의지하여 연구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학문의 목적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셋째, 그들은 선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두를 해석하고 풀이해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화두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백양록>의 서문에 삼교노인(三敎老人)이 화두의 역할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도를 닦는 도학자들이 평가하는 저울추의 역할과 수행자들이 선을 수행하는데 번뇌와 망상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화두라고 설명하고 있다.

선을 수행한다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수행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였는지 또는 바르게 수행하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평가의 척도로써 화두를 던져주어 그에 대한 답을 들어봄으로써 수행자가 어떤 경계에 이르렀는지 알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목적은 번뇌와 망상을 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선정을 닦는다고 목욕고요한 상태에 머물다 보면, 혼침과 산란에 빠지기 쉬워 바른 선정을 닦기가 힘들다. 그래서 상사이나 언어적 사유로는 풀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말을 던져주어 그 화두에 대해 간절한 의심을 촉발시킨다.

만약 화두를 대하며 의심에 사무치지 못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헤아리고 따지는 것은 번뇌와 망상을 더욱 증장시키는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선사들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즉 말에 떨어지지 해이하고 분석하지 말고 마음으로 바로 계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논자들은 마음으로 계합하자 못하고 말길에 떨어져 이렇게 저렇게 분별과 망상만을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화두를 해설한 책을 보고 사람들이 "화두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잘못 이해해 버리고, 다시 이 화두에 대해 간절한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처가 될 자를 송두리째 석화시키는 꼴과 다를 바 없다.

선사들께서 화두를 해석하고 헤아려 알아맞히려 하지 말라고 간곡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기어코 화두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가?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 대법회

■ 일시 ▶ 입재일 : 2000년 4월 9일 (음력 3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2박 3일)
회향일 : 2000년 4월 11일 (음력 3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 장소 ▶ 통도사 금강계단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55년간 전승해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금년도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법회를 위와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께서는 무루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 전계사 현산 영철 대화상
■ 유나/신본
■ 인례/지정

통도사 : 0523)382-7182, 7187
부 산 : 051)816-2241(부산포교당)
대 구 : 053)474-8228(불교대학 관음사)
창 원 : 0551)255-6359(구룡사)
마 산 : 0551)245-6544(마산포교당)
울 산 : 052)211-3340(해남사)
창 념 : 0559)533-2295(창녕포교당)
밀 양 : 0527)352-1150(포충사) 354-3296(무봉사)
서 울 : 02)355-9815(보현사) 575-7766(구룡사)
경 기 : 0344)905-7766(일산여래사)
0342)703-7766(분당장안사)

* 접수처 : 통도사 기와 불사처

교통편(통도사 버스)
· 부산 : 동래 은천장 (지하철역 앞) 08-09시 출발
· 울산 : 태화호텔(8시)-공업로타리(8시20분)-무거로타리(8시40분)

일반교통편
· 부산 : 동부시외버스터미널(명륜동) 매20분간격 출발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일반천일고속(부산-대구)매15분 간격출발
· 울산 :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08시 50분, 11시 20분 출발
· 서울 : 동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동서울 - 신령(통도사)] 직통
오전9시, 12시/오후3시, 5시/(심야)11시30분

불기 2544년 3월 일
(우)626-860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신 허 합장